

41

부산 세팍타크로 협회

세팍타크로는 말레이시아어인 '세팍'(발로 차다)과 태국어인 '타크로'(공)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15세기경 동남아시아 궁정경기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에는 1987년 한국사회체육센터 강습회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한국대표팀은 1988년 세계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에 처음 참가하였고, 2000년부터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1988년 대한세팍타크로협회가 창설되었으며, 부산지회는 1998년 창립되어 당시 반송중 김희규 교사를 비롯해 심판교육을 받은 여러 교사들이 부산에 세팍타크로 종목을 소개했다. 2000년 2월 정식으로 부산세팍타크로협회를 창립, 부산시체육회에 정식가맹단체로 가입했다.

2000년 동의공고와 반송중이 팀을 창단해 활동하던 중 2003년 말 동시에 해체되는 바람에 한때 협회 존립의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2005년 부산시체육회 이무진 운영팀장의 노력에 의해 당시 부산시의원 김청룡 회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부산세팍타크로협회를 재정비하였다. 2005년에는 부산정보대팀(여자), 부산시체육회팀(남자)이 창단했다. 2006년에는 부산환경공단 남자팀이 부산시체육회 팀을 인수하여 창단했고, 남자 고등부 부산기계공고팀이 창단하면서 재부흥기를 맞이했다.

이후 2008년 부산정보대학 여자팀이 해체된 반면 부산환경공단 여자팀을 창단했으며, 같은 해 제 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환경공단 남자팀이 은메달을, 부산환경공단 여자팀과 부산기계공고가 동메달을 획득해 종합 2위를 달성했다.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부산환경공단 남자팀과 부산기계공고가 금메달을, 부산환경공단 여자팀이 은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대망의 전국체육대회 종합 종합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2012년에는 부산체고 남고부팀이 부산기계공고팀을 인수하였다.

2013년 2월 부산환경공단 이철형 이사장이 협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환경공단 여자팀이 은메달, 남자팀이 동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2위를 달성하였다.

현재 부산환경공단에는 신추광, 마광희, 전영만(이상 남자), 김이슬, 심수연, 이민주, 김잔디(이상 여자) 선수가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세팍타크로협회에는 부산환경공단 남·여팀, 부산체고(남고부) 총 3개팀에 15명의 선수가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현직 회장

이철형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2010.10~2011.07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2011.07~2012.05

부산광역시 북구청

부구청장

-2012.05~현재

부산환경공단 이사

주요 연표

일자	내용
2000.02.10	부산광역시세팍타크로협회 창립총회 개최
2000.02.26	부산광역시체육회 가입
2000.03.12	동의공고 세팍타크로팀 창단
2000.03.15	반송중 세팍타크로팀 창단
2005.05.11	부산정보대 세팍타크로팀 창단
2005.05.09	부산시체육회 세팍타크로팀 창단
2006.02.20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 남자팀 창단
2006.03.23	부산기계공고 세팍타크로팀 창단
2008.03.13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 여자팀 창단

일자	내용
2011.10.12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세팍타크로 종합 1위
2012.12.21	부산체고 세팍타크로 남자고등부팀 창단

역대 회장

제1대	김백수	1998.02~2002.02
제2대	김백수	2002.02~2005.04
제3대	김청룡	2005.05~2008.02
제4대	김청룡	2008.02~2012.12
제5대	이철형	2013.02~현재

현직 회장 및 임원

협회 직위	성명	소속	
회장	이철형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박병대	송월타월(주) 대표이사	
	양갑석	감천중학교 체육교사	
	한성수	한창운수 대표	
	최종식	변호사	
	전인배	동의공업고등학교 교사	
	오승환	(주)국제산업개발 본부장	
부회장	양희창	(주)자연수종합상사 대표이사	
	전무이사	최영관	부산체육고등학교 감독
	강석환	전 부산타워 대표	
	김영길	변호사	
	김인숙	동원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철각	(재)한국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김현숙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장	
이사	김현철	(주)동인 대표	
	문종태	(주)유성도금 대표이사	
	박영철	THeng 대표	
	안나영	부산여자대학교 교수	
	편도식	삼신포장 대표	
	이선동	(주)디케이금속 대표이사	
	이상학	이상학세무회계 사무소장	
감사	이응철	협성건설 상무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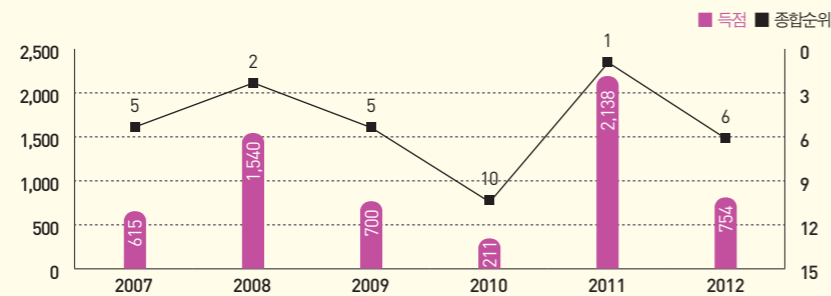
부산 산악연맹

선수등록 현황

연도	계(팀/인원 수)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3/14	-	-	1/5	1/4	1/5
2008	3/15	-	-	1/5	0/0	2/10
2009	3/15	-	-	1/5	0/0	2/10
2010	3/14	-	-	1/5	0/0	2/9
2011	3/15	-	-	1/5	0/0	2/10
2012	3/15	-	-	1/5	0/0	2/10

전국체육대회 성적(최근 6년)

연도	종합순위(특점)	획득메달 (금/은/동)	구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5(615)	0/0/2	3(307)	-	5(307)
2008	2(1,540)	0/1/2	3(468)	-	3(1,072)
2009	5(700)	0/1/0	2(532)	-	7(169)
2010	10(211)	0/0/0	5(211)	-	-
2011	1(2,138)	2/1/0	1(754)	-	1(1,384)
2012	6(754)	1/0/0	9(0)	-	4(754)



현직 회장

홍보성
조은하이텍건설 고문

- 1981 가내수4봉 정찰대원
- 1993 다림수라-필수라 원정대장
- 1996~1998 부산학생산악연맹 부회장
- 2004~2008 부산산악연맹 부회장
- 2004 한국청소년오지 탐사대(파미르고원) 지도위원
- 2005 한국 푸모리 원정대장
- 2006~2011 다이내믹 부산 희망원정대(8000m급 14개 봉) 원정대장
- 부산광역시 표창
- 체육훈장 맹호장 수훈

1876년 개항된 부산은 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서구 문물이 다른 지역보다 빠른 시기에 유입되면서 근대적 등산 활동도 비교적 일찍 시작됐다. 부산지역 향토문화의 중심지였던 동래에는 일찍부터 기영회와 동래청년회 등이 조직되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산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등산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부산의 등산 여명기라 할 당시는 일본 경찰들의 감시가 심해 어떤 단체를 구성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산악회 조직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부산에서 근대등산이 태동하던 시기인 1920년 한글학자인 최현배 선생이 동래고보(현 동래고 전신) 교사로 부임하여 휴일에 학생들과 함께 금정산, 장산, 영축산 등의 근교 산을 등산하면서 일제의 압박에 대한 울분도 삭이고 애국애족하며 국토를 아끼는 마음과 호연지기를 길렀다.

부산에서 출범한 근대적 산악단체의 효시는 1946년 4월 15일 결성된 조선산악회 경남지부라고 할 수 있다. 경남지부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신업재, 이재수 등은 1945년 9월 해방 직후에 결성된 조선산악회의 회원으로서 이전부터 부산에서 산악운동을 이끌어온 선구자들이었다. 이들은 1946년 6월 조선산악회 경남지부 창립기념으로 지리산을 올랐고, 이듬해 2월에는 본부와 경남지부가 합동으로 지리산 스키 중추 등반을 감행하는 등 활발한 등산 활동을 펼쳤다.

1950년대 말을 전후해 부산 산악계는 신생 산악회가 속속 창립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1958년 부산청년등산구락부와 대륙산악회의 창립에 이어 이듬해에는 수정산악회와 하이커클럽, 1960년 부산청년등산구락부에서 독립한 자일클럽, 1961년 하켄산악회, 1962년 구봉산악회 등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한 1963년에는 부산교직원산악회, 고려산악회, 하이커클럽, 부산대 학사산악회, 부산대 의대생 주축의 여성들로 구성된 메아리클럽 등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부산 산악계의 저변이 더욱 확대됐다. 기존의 한국산악회(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조선산악회가 한국산악회로 명칭을 변경) 경남지부가 학술탐사 위주의 산악활동을 전개했던 반면, 이들 신생 산악회들은 등산의 대중화를 주도하며 이후 부산 산악운동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1965년 단위 산악회들이 각각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효과적으로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연맹체 결성의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이때 결성된 것이 부산산악연맹이다. 당시 부산산악연맹은 부산지역의 독자적인 연맹체로 현재의 부산산악연맹과는 다른 단체였다.

1969년 대한산악연맹 부산직할시연맹이 창립되기 전까지 부산산악계의 유일한 연맹체로서 지역

